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11 12 우리네

정기간행물 등록 11호 www.uriseed.com Vol. 34

등록번호 : 경기아00107 |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 발행일 : 2008. 12. 1 | 간행 : 격월간 | 발행인 : 박승명 | 편집인 : 박공명 | 발행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896 | 발행처 : 우리꽃 | 주소 : 송파구 가락본동 99-3 제일오피스텔 617호 | TEL : 02)3402-1686~8 | FAX : 02)3402-1685

특집 「우리꽃」이 만든 우리 꽃이 품종로열티를 받고 세계로 수출됩니다.

2003년 11월 이미 유럽의 가을 하늘은 동화책의 마녀가 나올 듯한 기분 나쁜 하늘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은 검고 이끼 낀 담장 위로 높은 교회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수양서어나무위로 까마귀가 큰 날개를 접어 내려앉는다.

우리의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행렬이 거의 100m에 이른다. 부풀어 오른 희망과 설렘으로 꼬박 잠을 설쳤다. 전시부스의 디스플레이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임을 강조하는 컨셉으로 차별화시켰고 어느 정도 만족했다.

첫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부스를 찾아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디스플레이가 독특하다?" "도자기 참 예쁘네요?"

'싸게 공급 하겠습니다', '이 품종을 저희가 당신들의 10분의 1가격에 공급해 드릴께요, 어떠세요'

"을" "곳" "오" "곳" "이 디스플레이용 목재는 한국에서 가져 왔습니까?"

첫날은 그렇게 지났다. 둘째 날도 우리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주었지만 우리와 우리가 원하는 구매계약을 원하는 회사는 없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와 거래했던 유럽회사의 담당자들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상담해 주기를 바랬지만 이들은 아는 체만 하고 행인1, 행인2 처럼 스쳐지나갈 뿐 우리의 물건을 사주겠다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 다만 중동의 몇몇 회사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의 카다록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까지 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마지막날도 그랬다. 가져갔던 짐, 카다록을 철수하고 버리는 비용으로 700유로를 추가로 내고 철수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들어온 우리 일행은 자괴감으로 가슴을 후벼 팠다. 왜 이런 반응을 얻었을까?

다음 날 무작정 농가들을 방문하기로 하고 약속도 없이 교외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찾아간 농장에선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간 우리를 동양인이라고 아니 한국인이라고 그래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농장이 1만평은 되어 보였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자기하고 동남아에서, 그리고 남아공에서 온 남자인부 3명이 모두란다. 그리고 그들 인부들은 하루 3만원의 일당을 받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우리는 같은 면적에 할머니들 최소 15명에서 20명과 남자직원이 최소 3~5명은 되어야 운영하는 농장규모다. 그런데 여기는 힘이 별로 들지 않았다. 기계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식재되고.....

다음해 10월 일본의 치바현 전시장. 부푼 꿈을 안고 전시가 시작되기 2일전에 입국, 가든 센터를 돌면서 디스플레이할 식물을 사고 만족스럽게 전시준비를 끝내고 설마 1년 전의 악몽은 되풀이 되지 않겠지 하는 심정으로 카다록과 리플렛을 챙겨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우리부스를 연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전시된 식물의 화색에 감탄한다.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또 다른 부스를 향해...

첫날 내 심장은 다시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으~으"

둘째날 안되겠다 싶었다. 부스는 비워둔 채 통역을 데리고 우리물건을 사줄만한 참가부스를 찾았다. 카다록을 보여주고 가격을 싸게 줄 터이니... 관심 없단다.

오후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열굴이 상기되고...

첫날부터 측은하다는 듯이 우리부스와 나에게 눈길을 주던 바짝 마른 고약한 생김새의 할아버지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당신 오리지널 없어요?"

"예?"

"아니 당신 회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신품종이 없냐고요?"

뭥~, 한방 맞았다는 느낌과 그 느낌보다는 내게 관심을 보여준 것에 고마워 "많은 데요"

"당신이 개발한 오리지날을 가져와야지, 가격 가지고 어떻게 ..."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연락을 했다. "서치장 그 상록잔디패랭이 사진 있지, 그리고 무늬타래붓꽃, 무늬범개미취, 눈붉은찔레, 수국코스모스.... , 사진 빨리 메일로 보내!"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 품종, 이 품종, 이 품종 이거 좋은데 아니 이런 것을 가져와서 사라고 해야지 가격을 싸게 준다고 누가 사냐고, 생산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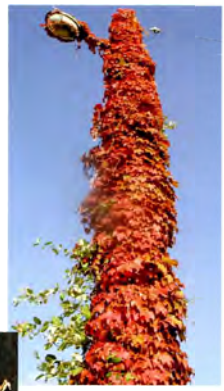
2007년 다시 일본 치바현의 전시장.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부스에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다. 우리가 전시한 우리의 품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 주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부스를 잠시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묻기만 묻고 계약을 하자는 회사는 없었다. 마지막날 아니 욜해도 수확 없이 끝나 버렸다. 하고 정리 하려는 순간 갑자기 4개 업체가 거의 동시에 찾아와 시험재배를 해보고 싶다며 계약을 하자고 한다.

고민을 했다. 모든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할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을 건넸을 때 로열티는 얼마나 받아야하지? 그리고 품종만 챙기고 약속을 챙기지 않으면 어떠하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졌다. 4개 업체 담당자들을 찾아 조만간 협의하기 위해 다시 일본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국했다. 그리고 농림부와 유통공사에 자문을 구하고 농민신문 등 언론사에도 자문을 구하고 11월에 다시 일본을 찾았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인 대표적인 원예 분화용 회사 HAKUSAN의 Takatomi사장과 계약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8년 18일 HAKUSAN의 Takatomi사장이 한국으로 와 우리와 정식 시험계약서를 작성하고 빠르면 4월부터 늦어도 6월부터는 수출을 결정하자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해외수출을 위해 문을 두드린 5년 후의 우리꽃의 현주소 이다.

〈2면에서 계속〉



▲ 단풍딸챙이
우리꽃에서 육성 품종보호출원 종.
봄부터 가을까지 잎이 단풍이 든 상태로 자란다. 방음벽 등에 기존의 푸른 담쟁이와 구분하여 심으면 좋은 칼라를 연출할 수 있다.

Contents

- 특집 | 세계로 수출되는 우리꽃
  2008년 우리꽃은 1,2,3면
- 스포트라이트 4면
- 대표적 조경식물군/목상, 암석 가든용 식물 5면
- 특집2 | 석축용식물 6,7면
- 2008년 관심집중 8면
- 현장히트품종 9,10,11면
- 특집3 | 2008 현장리포트 12,13면
- view 가이드 14면
- 종자프로젝트/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15면
- 포천 뷰식물원 16면

특집 2008년 우리꽃은…

* 제4회 우리꽃 축제

올해로 네번째로 진행된 이천연구소의 우리꽃 축제는 관공서 및 조경업체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합평군 농업기술센터 조대흠 영농과장님의 '꽃을 이용한 관광농업사례' 등 특별강연과 호안법면, 벽면, 옥상녹화의 새로운 스폰지형 입체구조물 녹화기반재 '벽화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우리꽃의 녹화제품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기를 기원하며 내년 우리꽃 축제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2008대한민국 조경박람회 벽화수 소개

한국조경사회, 환경조경발전재단, 리드엑스포의 주최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COEX 태평양관에서 그 화려한 막이 열렸다.

100여개의 관련업체가 참가 하였으며 7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꽃은 벽화수 녹화공법을 이용해 제작된 미니하우스, 벽화수 녹화공법으로 제작된 개선문과 담장, 스탠드형 벽화수, 실내 디자인 벽걸이용 벽화수를 선보였다.

* 랜덱스 2008 환경조경박람회

서울특별시, YTN의 주최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고양시 KINTEX 3hall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꽃은 벽화수 미니하우스와 자연석보도블럭과 숙근야생화로 디스플레이하여 전원 속의 주택을 연출하였다.

* 우리품종전시회

매년 At센터에서 소규모로 개최하였던 우리품종전시회를 2008년에는 그 규모를 달리하여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서울 양재시민의 숲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의 품종을 널리 알리며 우리의 품종을 역수입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 육종가들과 종자, 종묘업체들, 학계에서 참가하였다. 우리꽃은 숙근야생화의 대표적인 육종업체로 당당히 그 행사를 함께 하였다.

(1면기사 계속)

현재 HAKUSAN의 Takatomi사장이 P.W(세계화훼식물생산자네트워크)의 아시아 회장으로 우리를 회원으로 강력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유럽과 미국수출 건도 자신들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매우 많은 로얄티와 함께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피력했다.

우리꽃이 거의 10년간 이룬 업적은 국내에서 좋은 우량의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조경패턴과 함께 야생화 종자의 원도매회사로서 고가의 야생화 종자를 대량생산을 통한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산업화가 가능하게 해졌고 또한 외국의 우량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우리의 야생종과 교배육성 혹은 변이를 분리해내는 등의 노력의 결실로, 들어올 때는 남의 꽃으로 들어와 이제 나갈 때는 코리아 우리꽃의 오리지널로 수출되어 한국최초의 야생화 로얄티를 받아 오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UPOV에 의해 모든 품종이 보호를 받게 되어 품종 로열티를 해외에 줄 수 밖에 없게 된 이때 우리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품종으로 로열티를 받아온다는 사실은 우리 농업인은 물론 우리 국민모두가 자부할 만한 일인 것이다.

우장춘박사가 우리나라의 육종의 대부로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현재 고추, 수박, 무, 배추, 대목 등 채소육종분야에서는 세계최고의 품종을 육성하는 육종선진국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화훼분야에서도 많은 전문회사와 개인 육종가들이 출현할 것이고 우리의 뛰어난 민족성이 이를 증명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인은 자식이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의 내복을 사듯 첫 로열티를 받으면 문익점장학회를 만들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약속한다.

* 제5회 우리조경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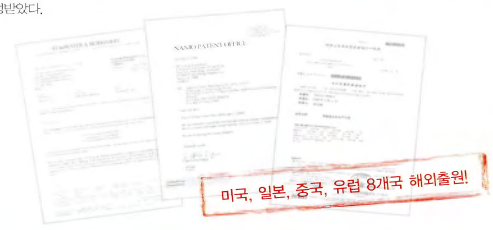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수한 소재를 현장에 잘 적용하여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제5회 수상자로는 충부CC, 김해시청, 파주시청, 태광골프장 등 총 4팀으로 9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백두산, 장백석림경구, 우리꽃 중국 현지농장 등을 둘러보며 우리조경인상 수상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신품종 개발 확대

숙근코스모스 '우리드림' 시리즈를 비롯하여 약 50여종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품종등록출원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우리품종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세계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종을 계속 선보일 것이다.

* 벽화수 특허출원과 벽화수 상표디자인 특허출원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벽화수의 특허출원과 벽화수 상표디자인의 특허출원을 인정받았다.



* 일본시험재배 계약

12월 18일 일본최고의 원예회사인 J&H Japan(HAKUSAN) Takatomi사장과 우리꽃 박공영 사장이 시험재배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 이제 우리꽃의 신품종이 일본시장과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날도 머지않았다. 시험재배 품종으로는 숙근코스모스 우리꿈 I, II, III, 상록잔디패랭이 외 2종, 빨간 탑쟁이, 눈붉은찔레 등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품종들도 시험재배를 통해 일본과 유럽, 미국 등에서 판매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스포트라이트 8

이국적인 아름다움 디기탈리스

키가 크고 볼륨이 있어
뒷줄식물로 이용하면 유용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은
목조 및 전원주택과 매우 잘 어울린다

일반 사람의 시선을 유난히 쉽게 끌어 모으는 식물이 있다. 꽃이 크다던지,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거나,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거나 등등 사람의 시선을 잡아두는데에는 제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디기탈리스(*Digitalis purpurea*) 또한 이러한 식물중의 하나이다. 약 1.5m정도로 크게 자라며 꽃은 종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다소 입술모양을 이루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꽃이 방울방울 매달려 전체적으로 촛불형으로 크고 화려하게 피는데 그 식물전체의 느낌은 매우 이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식물보다도 확 눈에 띄는 품종이기도 하다.

현삼과의 유럽원산으로 꽃은 일찍 피는것은 5월말부터 피기 시작하여 6, 7월까지 개화가 진행되고 화색은 품종에 따라 흰색, 분홍색, 적색 등 다양하다. 식물전체에 짧은 털이 많고 잎을 말려 강심제, 이뇨제로 쓰이기도 한다.

조경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키가 크고 볼륨이 있어 뒷줄식물로 이용하면 유용한데 열식으로 군락지어 심거나 또는 포인트식물로 반복해주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이국적인 아름다움은 목조 및 전원주택과 매우 잘 어울린다. 생육은 매우 강건하나 너무 웃자라면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척박한 토양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개화되므로 적정한 퇴비사용을 해주어야만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 쓰러지지 않고 또한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우게 할 수 있다.

꽃말('화려')에서 보듯이 화기가 길고 화려한 고급종으로 '우리꽃'에서 초기부터 적극 권장한 품목중의 하나로 조경현장에 적극적인 적용을 추천하며 기대이상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품종이다.

社告

우리꽃 사무실 이전 안내

그 동안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당사가 송파구 가락본동의 확장된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꽃은 야생화 및 녹화용 종묘 전문회사로서 항상 고객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끊임없이 도약하는 우리꽃이 되기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9-3 제일오피스텔 617호(138-715)
연락처 : 02-3402-1686~8 / FAX : 02-3402-1685

건조에 강하고 품종이 다양한
바위솔 시리즈
2009 특선
암석가든 뿐만 아니라 분화용으로도 최고의 식물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02-1686~8

대표적 조경식물군 22

향기와 꽃이 어울어진 고급 조경소재

배초향 시리즈

배초향자향

황금배초향

배초향이라고 하면 경상도 지방에서 방아풀이라 하여 집주변에서 갈러 음식에 향신료로 사용이 되어졌으며, 소화, 복통, 감기 등에 한약재로도 사용되던 토종허브이다.

조경현장에서도 사용되어져 왔지만 개화기간이 짧고, 잘 쓰러지며 잎이나 줄기에서 나는 향이 너무 강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품종이었다.

일반 배초향은 90~120cm까지 자라고 식물의 형태가 좋고 꽃이 보라색으로 은은해 바위 옆이나, 일반 한품종으로 넓은 면적을 식재하는 대면적 식재보다 한품종 한품종 특성을 살려 식재하는 혼합식재에서 그라스류나 후묵스등 키가 큰 품종과 같이 심어주는 것이 배초향의 특성을 살려 주는 식재 패턴이라 하겠다. 배초향 중에서도 우리꽃이 보유한 종으로는 잎이 황금빛이고 식물의 수형이 좋아 포인트 식재나 ARI가든에서 단독식재로 좋은 황금배초향과 일반 배초향에서 개량한 배초향 '자향'이 있다.

일반 배초향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혼합식재에 이용하거나 허브가든 등에서 사용하면 좋으며 황금배초향의 경우 키가 크며 잎의 색도 좋아 단독식재, 포인트 식재로 좋고, ARI가든에서 바위 옆에 심을때 제 멋을 낸다. 또 이번에 새로 개발한 배초향 '자향'의 경우 일반종에 비해 향이 부드러워 졌을뿐만 아니라 꽃이 일자형으로 커졌고, 꽃색이 짙어져 식재시 메인 식물로도 손색이 없으며, 키가 작고(60~90cm) 대가 단단하여 일반 대면적 식재에도 좋으며 라인식재에도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어떤 종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고의 소재가 되는 배초향, 이번호에 주목해 볼만한 품종이다.

배초향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20

블루애기세덤

우리꽃이 시공한 암석가든(ARI가든)은 식물종간의 간격을 1~2년 지나 하나의 큰 포기가 되었을때를 맞춰 간격을 조정하고 그것들이 잘 자라서 하나의 제대로된 포기가 되었을때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관리가 잘된 조경현장을 보면 처음의 의도가 어떤 것이 되었든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맛을 풍긴다.

이번에 소개할 블루애기세덤은 건조에 강하며 잎이 부드럽고 빨리 자라 암석가든에서 돌주변에 식재를 하면 이끼가 낀듯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초반에 현장에서 원하는 완성된 형태를 조금더 앞당길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옥상조경에서는 제일 앞 라인에 심어 흘러 내리게 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

또한 건조한 곳은 물론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차있는 곳만 아니면 생육이 좋으며 특별한 병충해도 없어 관리가 용이 하다. 다만 초기 생육이 좋아 장마철 녹아 내리는 현상이 올 수 있으나 이도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다.

블루애기세덤은 분명히 사용의 장소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같이 고온 다습한 장마기간 중에는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소가 제한되어 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식물이 자라기 힘든 건조가 심한 곳이나 토심이 얕은 곳에서 특별한 효용성이 있으며 장마철에 관리만 되어진다면 어떤 식물보다 틈새시장에서 가치있는 품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암석가든에서 돌주변에 식재를 하면 이끼가 낀듯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으며...

특집 석축메지용 식물

조경현장에서 경계용으로 돌을 쌓고 그 사이에 관목을 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석축메지용 소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천편일률적으로 회양목 아니면 철쭉류가 그 주를 이룬다.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메지용으로 맞는 소재를 모르거나 관행적으로 편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메지용으로 다양한 소재를 잘 적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호에서는 특집으로 석축메지용 식물을 다루고자 한다. 돌의 크기에 따라서 식물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2-3목, 4목이상으로 나누어서 적용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 2-3목 석축

대부분 돌이 작기 때문에 메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크기가 작은 다양한 식물을 적용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왕상조팝

돌꽃잔디

돌창미

섬백리향

은쑥

돌단풍

패랭이류

LH06

선목잔디패랭이

왕상록패랭이 창이슬

잔디패랭이

패랭이 쿠션

패랭이 핑볼

꽃잔디류

레드핀

화이트

레드하이

레드킹

세덤류

다림취꼬리세덤

루프목바위솔

백두산애기세덤

애기청비름

무늬돌나물

눈붉은꿩의비름

단풍세덤

애기세덤

4목 석축

큰 돌이기에 적용식물도 관목류를 비롯한 돌과 잘 어울림수 있는 볼륨이 있는 큰 식물을 적용하여야 안정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큰꿩의비름 만추

로니세라

에버골드

바하브눈향

해변국화

분홍구절초

골드밴드

흰꽃

호스타류

조팝류

황금조팝

삼색조팝

붉은까실조팝

흰꽃조팝

물싸리류

선셋

여명

프린세스

아이리스류

제비붓꽃

부채붓꽃

타래붓꽃

흰붓꽃

유카류

유카

유카 브라이트에찌

아스타류

화이트

라시

빌라드

퀠로우

원추리류

퍼플퓨터

시카고

체리

2008년 관심집중 - ⑤

올해 새롭게 소개되어지거나 또는 기존 품종중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넘어가야할 숙근초들을 매회 4품목씩 선정, 연재하고 있다. 조경용 식물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노랑에키나

에키나인지 루드베키아인지?

자주색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에키나는 여름철 대표적인 야생화이다. 숙근지피식물중에서도 초장이 크고 장기개화를 하며 꽃이 필 때는 물론 꽃이 질 때에도 꽃잎이 모두 떨어진 후에도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여 더욱 더 사랑을 받고 있는 품목이다. 우리꽃에서는 수년전부터 에키나 뿐만아니라 흰색에키나 '스노우' 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랑색의 에키나인 '노랑에키나' 를 선보이게 되었다.

노랑에키나(*Echinacea paradox*)는 에키나와 마찬가지 양지바르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생육이 매우 강해 어느 곳이나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잎은 어긋나며 자라고 전체적으로 털이 많으며 7~8월경 지름 10cm정도 크기에 꽃을 피운다. 꽃잎은 위에서 아래로 쳐지는데 에키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노랑에키나는 잎이 더 얇고 아래로 더 처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하늘거리는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보통 키는 60~80cm정도 자라 화단의 뒤편이나 포인트식물로 좋으며 무늬새그라스나 몰리니아와 같은 그라스류와도 같이 식재를 해주면 한층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 할 수 있다.

한여름에 풍뎅이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번식은 보통 뿌리나누기와 종자번식을 한다.

예전부터 인디언들이 천연항생제 및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독사나 벌레에 물렸을 때 사용해온 허브로도 유명한 약초였던 에키나는 그 약효뿐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 조경용 숙근지피식물로도 손색이 없는 식물이다.

대형무늬갈풀

하천, 법면의 최고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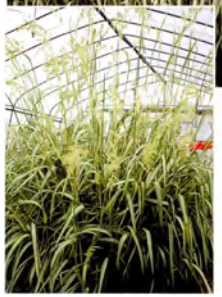
물가나 건조지등 어디나 잘 자라는 식물, 어디나 놓아도 폼 나는 식물, 잎의 무늬가 좋아 봄, 여름, 가을 모두 관상가치가 뛰어난 식물 등 많은 수식어가 부족할 만큼 장점이 많은 식물이 바로 대형무늬갈풀이다. 그만큼 좋은 품종이며 많은 그라스품종 중에 가장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종이다.

대형무늬갈풀(*Phalaris arundinacea 'Feesey'*)은 어디나 잘 자라며 특히 수변 혹은 10cm미만의 수중에서 잘 자랄 정도로 생육지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수변지역과 같이 약간의 습기를 가진 비옥한 토양에서는 매우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키도 1.5~2m까지 자라 하천식물로 많이 심고 있는 억새나 물억새와도 잘 어울린다. 또한 뿌리의 지하경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하천고수부지의 큰 군락지를 만든다면 토양의 유실방지는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소재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맹아력이 좋고 회복력이 매우 빨라 좋은 모양을 유지한다. 다만 다른 식물과 혼식을 하였을 경우 타식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깨끗이 잘라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우기때 하천의 물에 잠기는 고수부지나 법면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척박지나 습윤지등 어디나 잘 자리고 아름다운 대형무늬갈풀은 하천, 법면등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곳에서 잘 자라는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

이른 봄에 녹색이 아닌 꽃보다 아름다운 눈부신 하얀색을 보면 어떨까?



현장 히트품종

느리지만 품위를 가진꽃

거북머리

항상 새로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꽃, 그러면서 품위를 가진 꽃

2008년 새로 출시된 품종중 가장 눈길을끄는 것은 단연 거북머리이다.

키는 60~80cm이고 꽃은 7~9월에 핀다. 분홍색과 흰색 두가지가 있으며 내한성이 좋아 전국 어디에서도 겨울을 난다. 이름은 꽃의 형태를 따 거북머리라는 이름으로 지었으며 원래 학명은 Chelone obliqua이다.

멀리서 본 꽃은 만개 했어도 꽃봉오리처럼 보인다.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꽃이 질때에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다. 항상 새로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꽃, 그러면서 품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 좋은 것은 대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같이 비와 바람이 강한곳에서는 식물이 잘 쓰러져 장마, 태풍이 지나고 나면 잘라 세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거북머리는 대가 사각으로 튼튼하고 적당히 밀생되어 있어 사람이 발로 밟아 꺾지 않는 이상 쓰러질 염려가 없다. 또 잎은 진한 녹색이며 윤기가 있어 꽃이 없는 시기에도 관상가치가 높다. 특히 꽃은 다른 꽃들이 주춤하는 한 여름에 피어 가치를 더한다.

출시 된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 되는 품목이다.

대면적 정갈한 품위

몰리니아

가을 단풍이 일품이며
라인식재나 모아심었을 때 최고의 효과

2008년 우리꽃 현장에서는 꼭 빠지지않는 품종들이 있었다. 개량루드스, 숙근코스모스, 가우라, 스텔라위추리가 그것들이다. 모두 꽃이 화려하고 6~10월까지 개화가 길며 어떤 환경에서도 잘자라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품종 몰리니아를 빼놓을 수 없다. 먼저 나열한 품목처럼 꽃이 화려하거나 오래가는 품종은 아니지만, 그라스류로써 어떤 현장 상황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몰리니아는 두품종으로 나뉘는데 우선 몰리니아 대형은 포기의 형태가 좋으며, 1년이상 지났을때부터는 자기 본래의 폼이 나온다. 여름에는 열매가, 가을에는 줄기와 잎 전체가 갈빛으로 단풍이 들어 계절감도 같이 느껴지는 사계절용 품종이라 하겠다. 라인식재나 모아 심었을때에도 최고의 효과를 내준다. 몰리니아 소형은 대변적 식재에 특히 좋으며 대형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드는 단풍이 일품이다. 대형보다 키가 작아 감옆 라인식재에도 좋다. 두 품종 모두 그라스 특유의 단아함과 기품으로 조경현장의 수준을 한단계 올려 놓는 소재가 되어 준다.

어떤 곳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소재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어떤 곳이건 적응을 잘하고 관리가 쉬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품목이 될 만하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

꽃잔디 시리즈

봄,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흰색부터 빨강까지 자유롭게 색감을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꽃잔디 레드밴

꽃잔디 레드아이

꽃잔디 레드킹

꽃잔디 에메랄드

꽃잔디 화이트

수변의 대형식물

왕머위

대형의 이국적인 느낌
이제는 수변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기품있는 고급 그라스

골드밴드

아름다운 초형의 상록성 소재
잎의 무늬와 질감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봄에 볼 수 있는 국화

구름국화

키 작은 봄국화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도 잘 적응합니다.

음지의 노란 등불

음지황국

5-6월의 황금색 꽃물결
음지를 밝게 해줍니다.

주먹형 동자꽃

수레동자

화색이 선명한 주황색 꽃봉오리
하얀색꽃과 어울려 심으면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음지를 표현하는 최고의 힘

호스타 시리즈

음지의 기본 식물
곧 20여종의 호스타 품종을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봄에 피는 후룩스

후룩스 '봄' 시리즈

새로운 봄꽃 소재
후룩스의 색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후룩스봄맞이

후룩스봄바람

눈부신 황금색 조팝

황금조팝

시선을 사로잡는 조팝
군식, 라인, 포인트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잔디대용의 지피식물

카펫주름잎

지피력이 빠르다.
답압에 강하여 누구나 밟아도 괜찮습니다.

파랑의 꽃방석

눈하늘꽃

여름부터 가을까지 파랑의 선명한 꽃
가을단풍까지 아름답습니다.

천상의 아름다움

숙근양귀비

오리엔탈, 아이슬란드 뽀삐
최고의 화려함을 원한다면 봄 일찍 식재하십시오.

특집 2008년도 현장리포트

우리꽃의 2008년도는 고객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해 였습니다.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확실한 시공으로 많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온 해였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많은 지역축제와 아름다운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올 한해 우리꽃이 만들어온 현장들이 기대됩니다.

* 함평

함평생태공원 : 국화축제기간 공원 내에 화장실을 벽화수로 단장하여 꽃이 피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연출하였다.

함평군 : 벽화수를 이용하여 지역곳곳에 있는 옹벽과 건물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함평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함양

2009년에 함양에서 펼쳐질 축제를 위해 우리꽃이 경관제안과 시공을 하였다. 800,000㎡의 넓은 대지위에 펼쳐질 꽃의 향연이 기대된다.

* 수원

수원시 : 서호천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좋지 않았던 서호천의 이미지를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바꾸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

파주시 :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매년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파주 심학산 돌곶이 축제

* 부천

부천시 : 부천시 원미구에 중동IC 부근 고가교에 벽화수를 이용하여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봄이 기대되는 현장이다.

* 전남 광주 전원주택

수목이 잘 정돈된 정원 곳곳에 사계절 꽃이 피는 야생화를 심어 한층 고급스러운 정원으로 연출하였다.

* 동아방송대학

캠퍼스의 중심부와 공관에 혼합식재와 ARI가든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가진 캠퍼스로 연출하였다.

* 중부CC

중부CC : 3,4홀 부근 새로 만든 연못주변에 토사방지 와 야생화를 이용한 라인식재를 함으로써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만족을 시킨 현장이다.

* 오산

오산시 : 오산 시민들의 쉼터였던 오산천의 법면에 혼합식재, 우리법면 4호, 벽화수를 이용하여 봄, 여름, 가을꽃이 피는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 서원밸리

서원밸리 : 클럽하우스 앞 소나무 아래에 락가든을 조성하여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진천 테마공원, 화랑공원

진천에 대표적인 공원인 화랑공원내에 야생화화단과 ARI가든을 시공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의장공관

의장 공관 곳곳에 야생화를 환하고 밝은 공관 정원을 조성하였다.

뷰가이드 6 외국식물원편-❸

쉬니게플라테(schynige platte)

스위스하면 쉽게 연상되는 단어는 관광국가, 알프스, 요들송, 산악국가, 중립국가 등등이다. 이중에서도 스위스는 관광국가로서 명성이 높은 나라이다. 여러 관광도시가 있겠지만 알프스 융프라우지역은 관광명소로 제일 유명한 곳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빙하지대로 비교적 최근인 2001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보호 가치가 높아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즉 빙하 지대 고유의 여러 가지 지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프스 특유의 다양한 생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베른 주와 발레 주에 걸쳐 있으며,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를 비롯한 아이거, 멘히, 비츠, 알레치 등의 여러 산봉우리와 서유럽에서 가장 큰 알레치 빙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알레치 숲을 통과하는 하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그 협한 산악지형에 16년간의 장기공사를 통해서 철도를 완성하고 융프라우 정상까지 편안히 올라갈수 있게 한것에 새삼 놀랐고 또 한번 놀란것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에서 온 아시아인 이라는것....

이곳은 또한 알프스 산맥 특유의 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의미가 깊다.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다양한 생태계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생태 천이의 좋은 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알레치 숲에는 아고산대, 고산대 등 수목한계선을 따라서 광범위한 등식물의 생태를 볼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의 변화가 이곳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융프라우로 가는 여러관광코스 중에서 이러한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고산식물원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쉬니게 플라테(*schynige platte*)이다.

해발 2,076미터에 위치하여 산악지대에의 목본식생대 이상에서 발견되는 고산식물종들을 관찰할 수 있다. 패랭이류, 할미꽃류, 용담류 등 쉽게 접할수 없는 다양한 고산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자연서식지라 할 수 있다. 산악철로를 통해서 식물원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500여개 라벨화된 식물종에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고 고산식생의 생태에 관한 것, 사람에 의한 교란 등에 관한 전시도 볼 수 있다. 둘러보는길은 약 500미터 정도되는데 시원하게 펼쳐 놓은듯한 바탕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고산식물들이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쉬니게플라테는 1928년에 문을 열어 해마다 5월에 개장하여 9월까지만 운영한다. 겨울이 일찍 찾아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날씨에 따라서 7-8월에도 눈을 볼 수 있다.

이 고산식물원의 중요한 의미는 융프라우지역의 특별한 관광명소이고 자연보호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과학적 연구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산 식생에 대한 관심과 특별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음지식물 이해와 적용 15 지피력이 좋은 상록성 소재

상록양지꽃

2009 특선

양지꽃은 좀양지꽃, 솜양지꽃, 돌양지꽃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 Potentilla속이다. 하지만 양지꽃 중에서 중부 이북의 숲속 빈터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나도양지꽃이 있는데 이 종류는 Waldsteinia속 인것이 아색적이다. 이번호에서 소개하고자하는 품종도 Waldsteinia속의 식물로 나도양지꽃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겨울상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름을 상록양지꽃(*Waldsteinia lobata*)이라 명명해보았다.

음지쪽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은 극히 제한되어있고 더구나 상록성의 식물은 수호초, 송악, 맥문동 등 그 종류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런면에서 상록양지꽃은 음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록성의 식물로서 적용가치가 높은 품종이라 할 수 있다. 자라는 특성은 옆으로 런너를 뻗으면서 자라는데 매우 조밀하게 빨리 자라 지피력이 뛰어나고 생육도 강건하여 병해충 등 특별한 관리없이도 잘자란다. 꽃은 5-6월경 노랑색으로 피고 화기는 짧으나 반면에 잎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어 질감이 좋아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상록양지꽃은 음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록성의 식물로서 적용가치가 높은 품종

실제로 유럽등지에서 나무아래 지피식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속의 가로수 아래를 비롯하여 골프장, 식물원, 정원 등의 나무아래를 비롯한 음지지역에 군식하거나 수호초, 대사초류, 호스타류 등과 혼식해도 좋다. 음지 뿐만아니라 양지쪽에 적용하여도 무난하게 잘 자란다.

번식은 봄, 가을에 런너를 각각 떼어내어 트레이에서 키워 뿌리를 내린다음 포트에 옮기거나 아니면 물관리에 신경을 더 써줄수 있다면 바로 포트에 직삽해주어도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육이 까다롭지 않고 강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지식물로 적용을 적극 권장해본다.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7

섬초롱꽃 Campanula takesimana

과 명 : 초롱꽃과(도라지과)Campanulaceae
학 명 : Campanula takesimana Nakai .
이명,지방명,한약명 : 자반풍령초(紫斑風鈴草), 풍령초, 섬초롱
분포지 : 한국 특산종으로 울릉도 바닷가 풀밭 등에 자생하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개화기 : 8월 결실기 : 10월

특 성

해안지대에서 자라는 섬초롱꽃은 여러해살이풀로 울릉도 특산 식물의 하나이며 기다란 원통형의 꽃이 예전 밤에 사용했던 초롱과 모양이 비슷해서 '초롱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섬초롱꽃은 6월~8월에 피고 초롱꽃의 꽃색은 황백색인 반면에 섬초롱꽃은 연한 자줏빛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의 길이는 3~5cm로 가지와 원줄기 끝에서 종처럼 아래를 향해 핀다.
흰색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는 것을 흰섬초롱꽃(for. alba), 꽃이 짙은 자줏빛인 것을 자주섬초롱꽃(for. purpurea)이라고 한다.
한여름밤, 울릉도 해안가를 거닐다 보면, 섬초롱꽃의 고개 숙인 모습이 종 모양의 초롱불이 주렁주렁 매달린 듯하여 순박하고 정스러운 시골정취를 느끼게 한다.
음지에서도 잘 견디며, 분화용으로도 우수하다.

약효 또는 용도

관상초로 심고 한방과 민간에서 뿌리를 천식, 보익, 경풍, 한열, 보폐, 편도선염, 인후염등에 약재로 쓴다.
또한 연한 잎과 줄기를 채취해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말려서 볶아 먹기도 한다.
쌈채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만개한 꽃은 따서 안에 육류와 양념을 채워 요리하여 식용하면 맛과 모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농업적 경관, 휴식, 낭만이 있는 곳, 포천뷰식물원

제1회 국화향기 억새바람 가을축제 성공적으로...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뷰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포토존

10월 3일부터 11월 9일 까지 국화향기 억새바람 가을축제가 포천 뷰식물원에서 진행되었고 가을축제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있어 산정호숫가에 억새 위주로 포토존을 만들어 반응이 좋았고 처음으로 부스도 운영하여 뷰식물원을 주변에 홍보하는 계기 또한 마련하였다. 인접한 화현면에서 개최된 운악산 단풍축제와 뷰식물원이 있는 일동면에서 8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일동 오뚜이 한마음축제에서도 부스를 운영하여 뷰식물원을 인근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덧 된서리가 내려 겨울준비를 해야 할 계절이 되었다. 11월 15일, 16일에는 김장 체험 이벤트, 그리고 29일에는 된장 담그기 이벤트가 진행되어서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튤립, 수선화 봄 축제를 준비하기위해 뷰식물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잔디정원을 중심으로 식물원 전체에 튤립, 크로커스, 무스카리, 알리움몰리를 심고 있으며, 7단 캐스케이드 계곡 주변 전체에 수선화를 심고, 무지개 동산 밑 동선에 히아신스를 심어놓아 수선화의 노란색의 아름다운 자태와 히아신스의 향기로움, 그리고 형형색색의 화려한 튤립의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상상해본다. 내년 봄이 어서 빨리 오길 기다리게 한다.

드넓은 양귀비 들판에는 잉글랜드 양귀비, 아이슬란드 양귀비, 캘리포니아 양귀비와 함께 안개꽃과 영채를 파종하여 양귀비 식물원에 걸 맞는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이 연상 된다.

황토방과 사무실은 이영을 얹어 초기지붕을 해서 탈곡을 입은 듯 새롭게 단장을 해서 따뜻해 보인다.

김장도 맛있게 하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김치광을 만들어 땅에 저장하였다.

어느 식물원이나 어려움은 비슷하겠지만, 겨울이 일찍 오는 포천 지역에서 더구나 세계적인 불황 여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 솜씨가 좋은 디자인 전문가가 물레방아, 우체통 등 식물원에 어울리는 조형물도 만들고 뷰식물원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포천시에서 식물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할 계획이고, 뷰 에서 3km 내에 년 100만 입장객을 목표로 하는 칸리조트가 6월 개장할 예정이며, 신사촌으로 유명한 신사원에 한옥으로 신축한 시음을 할 수 있는 갤러리도 새롭게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주변 관광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09년이야 말로 뷰식물원의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해 어느 때에 입장해도 꽃이 제일 아름다운 식물원, 사진 동호인이 제일 선호하는 식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한편, 조경인에게는 명실상부한 한국적인 농업적 생태조경의 메카로 우뚝 서는 해가 될 것이다.

미리 보는 2009년 뷰식물원 일정 – 홈페이지 참조(www.viewgarden.co.kr)

운악산 단풍축제

초가지붕 이엉엮기

운악산 단풍축제

포천뷰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02-1686~8